

김영진·최인기·김재균·조영택·신건·강봉균

호남 현역의원 6명 탈락

민주당 공천...탈락자들 "무소속 출마" 반발

민주당 공천심사위원회(이하 공심위)의 공천 심사 결과, 김영진, 김재균, 조영택, 최인기 의원이 공천 경쟁에서 탈락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의 광주·전남 현역 국회의원들에 대한 공천 '물갈이' 규모는 절반을 훌쩍 넘어설 전망이다. <관련기사 3·4면>

민주당은 5일 오전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호남지역 25개 지역구의 공천자와 경선 후보자 등 호남권 공천심사 결과를 확정했다.

공천에서 탈락한 광주·전남지역 현역 국회의원들은 김영진(광주 서울), 조영택(광주 서갑), 김재균(광주 북을), 최인기(나주·화순) 등 4명이며, 전북에서는 강봉균(전북 군산), 신건(전북 완산갑) 등 2명이다.

광주·전남지역 19개 지역구 가운데 광주 서울, 광주 남구, 광주 북갑, 광주 북을, 광주 광산 갑, 여수 갑 등 13곳에서 경선이 치러진다.

박지원(목포), 주승용(여수), 유윤근(광양·구례), 이용섭(광주 광산) 의원 등 4명은 단수 후보자로 확정됐다.

광주 서 갑의 경우, 여성 예비 후보 가리 경선을 치르기로 했으나 최종 확정은 보류됐으며, 광주 동구는 무공천 지역으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광주·전남지역 18명의 민주당 현역 국회의원 가운데 박상천(고흥·보성, 불출마), 유선호(영암·장흥·강진, 서울 지역구 진출), 박주선(광주 동구, 무공천)을 포함하면 7명이 공천을 받지 못했다.

여기에 현역 국회의원과의 양자 대결로 치러지는 경선에서 최소한 2~3명 이상의 현역 국회의원이 고배를 마실 가능성이 높다. 또한, 19대 총선 본선에서 무소속 탈락도 예고되고 있어 광주·전남 현역 국회의원 물갈이 폭은 절반을 훌쩍 넘어설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날 호남 공천을 계기로

이전까지 진행된 공천에 대한 비판론이 잦아들기를 기대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결과는 미지수다. 민주당이 야심차게 추진한 국민 선거인단 경선에 대한 민심 이반이 심각해졌다. 공천 탈락 국회의원들의 반발도 심상치 않기 때문이다.

당장, 공천 심사에서 탈락한 강봉균, 신건, 조영택, 최인기 의원은 이날 공동으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심위가 친노 세력의 각본에 따라 꼭두각시처럼 유력한 호남 정치인을 학살했다"고 주장했다.

최인기 의원은 "친노 패거리가 호남 민주당을 학살했다"고 분개했으며, 김재균 의원은 "특정 세력의 정치적 각본에 의해 연출된 공천 학살극"이라고 반발했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민주당 공천에서 탈락한 현역 국회의원들과 예비 후보들이 무소속 연대에 나설 경우, 총선 구도에 상당한 파장을 가져올 것으로 보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U대회 선수촌 확정주공 철거 시작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선수촌으로 쓰일 광주시 서구 화정주공아파트 철거작업이 지난 1일부터 본격화됐다. 최근 선정된 철거업체는 68~73동을 철거한 뒤 파쇄작업을 벌여 올 상반기까지 철거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화정주공아파트는 재건축을 통해 3726가구 규모로 신축되며, 광주U대회 선수촌으로 쓰인 뒤 일반에 분양된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민주 국민경선 선거인단 절반 이상 호남지역 집중

광주·전남 28만, 전북 24만명

민주당 경선에 참여하는 선거인단 중 절반이 넘는 숫자가 광주·전남·전북 등 호남에 집중됐고, 영남과 충북 일부 지역은 1만 명도 채 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투신 자살' 참극까지 불러일으킨 민주당의 선거인단 모집이 사실상 호남 예비후보들의 과열경쟁을 부추겼다는 지적이다.

4·11 총선 민주당 통합 국민경선에는 총 103만4173명의 선거인단이 신청해 이중 103만451명(모바일 투표 55만7377명·현장 투표 47만7136명)이 선거인단으로 확정됐다.

이중 전북이 24만229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경기가 17만4673명, 전남 17만2432명, 서울 15만4125명, 광주 10만9529명 순이었다. 10만 명이 넘는 곳은 호남을 포함한 서울과 경기 5곳

에 불과한 셈이다.

반면 경북과 대구는 각각 575명, 993명으로 1000명을 넘지 못했다. 부산은 1743명, 충북 5979명, 울산 8890명 등으로 영남과 충북은 1만 명도 채 되지 않았다.

선거인단 모집결과 해당 선거구 유권자 총 숫자의 2% 미만인 경우 모바일과 현장투표 70%, 여론조사 30%를 한다는 규정에 따라 호남과 서울·수도권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여론조사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볼 때 이번 선거인단 모집은 80여만 명이 몰린 지난 1·15 정당대회를 훨씬 상회했지만, 선거인단 절반 이상이 호남지역에 집중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정당대회와 달리 국민경선 취지에는 크게 벗어났다는 지적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최경미기자 cki@kwangju.co.kr

60%대 득표... 푸틴 러 대선 승리

러시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5일 여당 후보인 블라디미르 푸틴이 63% 이상을 득표한 잠정 개표 결과에 근거해 푸틴의 대통령직 당선을 선언했다. <관련기사 5면>

블라디미르 푸틴이 러시아 대통령으로 선출됐다"고 발표했다. 중앙선거위에 따르면 99.5%의 개표가 진행된 현재 3선에 도전한 여당 후보인 푸틴이 63.71% 득표로 1차 투표에서 대통령직 당선을 확정지었다.

최대 야당인 공산당 후보 젠니디 유가노프는 17.19%, 재벌 출신의 무소속 후보 미하일 프로호르프는 7.86%, 극우민족주의 성향의 '자유민주당' 후보 블라디미르 지리노프스키는 6.23%를 각각 획득했다.

푸틴 총리도 자신의 '완전한 승리'를 선언했다. 리아노프스트 통신 등에 따르면 푸틴 총리는 이날 투표 종료 후 모스크바 크렘린궁 바로 옆의 '마네주 광장'과 '혁명 광장' 등에서 10만명 이상의 지지자가 운집한 가운데 열린 집회에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대통령과 함께 참석해 감격의 눈물을



보이며 이같이 선포했다.

그는 "난 우리가 승리할 것이라고 여러분에게 약속했고 우린 이겼다. 러시아에 영광을 바친다"면서 "우리는 공개적이고 정직한 선거에서 완벽하게 승리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야권에서는 부정선거 규탄 대회를 계획하는 등 크게 반발하고 있어 당분간 혼란이 예상된다. 연합뉴스

학교설립 58주년(1954-2012)
기독교 명문대학 광신대학교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062)605-1115

새누리 공천 친이계 대거 탈락 반발

광주·전남 출신 정두언·이성현·심재철·정양석·김동성 공천

새누리당 공직후보자추천위원회(위원장 정홍원)는 5일 4·11 총선 후보로 서울 중로에 친박(친박근혜)계 6선 중진인 홍사덕 의원, 민주당통합당 문재인 상임고문인 출마한 부산 사상에는 27세 여성 손수조씨, 서울 동작에는 여권의 대선주자 중 한 명인 정몽준 전 대표, 부산사하갑에는 외부영입 인사인 문대성 IOC 선수위원을 각각 확정하는 등 81명의 2차 공천자 명단을 발표했다. <관련기사 5면>

이날 공천자 명단에는 광주·전남 출신인 정두언(서울 서대문을)·이성현(서울 서대문갑)·심재철(안양 동안)·정양석(서울 강북갑)·김동성(서울 상동을) 의원을 비롯, 권영세 사무총장(서울 영등포을), 황우여 원

내대표(인천 연수), 유승민(대구 동구을)·강창희(대전 중구)·김태호(경기도 김해을) 의원이 포함됐다.

호남지역 공천은 이번에는 제외됐다. 이번 2차 공천에서 현역 탈락자는 이경재·이윤성·장광근·권택기·강승규 의원 등 16명이며, 김영삼 전 대통령 차남인 김현철 여의도연구소 부소장과 영광 출신으로 친이(친이명박)직계인 김대식 전 민주당총 사무총장도 낙선했다.

새누리당은 또 이날 13개 지역을 전라공천지역으로 발표, 이들 지역의 현역의원 탈락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이날 사실상 27명의 현역의원이 공천 탈락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이번 현역의원 탈락자 16명 중에는 친이계가 11명이고 전라공천지역 중에도 진수희·전여옥·이영규·신지호·정미경 등 친이계 의원들의 지역구가 다수 포함돼 친이계의 '공천 보복' 주장이 잇따르면서 당이 내용에 휩싸이고 있다.

진수희·전여옥·신지호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정문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공천 결과에 강력히 반발했다. 경남 거제 공천에서 탈락한 김현철씨도 기자회견을 갖고 "공천을 빌미로 한 1인 쿠데타적인 공천 사기극"이라고 반발했다. 이들 중 상당수는 무소속 출마까지 검토하고 있어 여권의 핵분열이 가속화될지 주목된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화병

이젠 한방(韓方)으로 다스린다

미국 정신과 협회는 96년 화병을 한국인에게서 나타나는 특이한 현상으로 일종의 문화중후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체면, 도리, 의무감을 중시하고 참는 것이 미덕으로 여겨진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화병의 원인은 계속되는 스트레스, 억울한 감정, 억압적 환경, 자신의 이상과 맞지 않는 현실, 충격, 자식이나 배우자 외의 사별, 타인으로부터 서운한 감정, 사업의 실패, 억눌린 감정 때문입니다. 이런 것을 제때에 신체에서 소화해내지 못하면 심장병, 중풍, 고혈압, 두통, 당뇨병 등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많아 화병은 무서운 질병 중의 하나입니다.

화병의 가장 큰 신체적 특징은 상체로 혈액이 몰려서 열이 많고 하체는 혈액공급량이 적어서 허약해지고 차가워지는 현상 즉, 상열하한(上熱下寒)입니다. 상체의 증상으로 울혈증상이 있습니다. 인체의 상체로 피가 몰리는 현상으로 상체의 혈관이 팽창되어 안면홍조, 눈의 충혈, 심장이 두근거림, 고혈압, 숨이 차고, 귀 울림, 목 근육 경직, 두통, 어지러움, 기억력 감퇴가 오며, 머리에 열이 많아 땀이 많아집니다. 또한 상열증상으로 인해 얼굴 피부건조, 마른기침, 끈끈한 가래, 비염, 안구 건조감, 탈모, 시력저하 등이 올 수 있습니다.

하체에는 스트레스, 성질, 화를 낼 때마다 혈액과 영양분이 상체로 올라가니 하체는 자연히 혈액공급량이 적어져 대장, 방광, 자궁, 골반, 허리, 무릎 다리가 차가워지고 하체전반부에 기능저하가 나타납니다. 하복부팽만, 대장(변비, 설사), 방광(요실금, 만성방광염), 자궁(생리통, 냉대하, 자궁암, 자궁근종), 골반(만성골반염, 요통, 디스크), 무릎관절염, 다리가 저리고 시린 증상이 발생되기도 합니다.

스트레스 화병이 오래 지속되면 전신의 기운이 약해져 전신 무력감, 불면증, 우울증, 의욕저하 만성피로가 되고, 음식물을 먹어도 기운이 나지 않고, 먹어도 항상 속이 허하고 힘을

자연과 몸을 하나로 만드는
경희한의원

사람들은 항상 성공을 향해 바쁘게 달립니다. 그러나 자신의 욕망과 결과가 맞지 않으면 뜻 견디고 속이 상해하고 병까지 얻습니다. 이제 목표를 조금만 낮춰 다시 시작해 보십시오. 처음보다 더 큰 성취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바로 자연의 이치대로 살아가는 것이 편안한 삶이며 병을 얻지 않는 방법입니다. 일반적인 진료가 아닌 환자의 마음을 살피고 어루만지는 가족주치의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희한의원) 전 선형 원장

진료 과목
한방내과, 한방부인과, 한방소아과, 한방안·이비인후과, 한방신경정신과, 한방침구과

진료 안내
• 화병 / 스트레스 질환
- 불안, 초조, 가슴떨림 - 상열감, 안면홍조, 냉면지 장애
- 신경성 두통, 불면증, 우울증 - 수험생 집중력 저하

진료 시간
평 일 : 오전 9:30~12:30 / 오후 2:00~6:30
토요일 : 오후 4시까지 진료 공휴일/일요일 : 휴진

진료 문의
TEL 062)365-1541
광주 서구 화정동 추신회관 건너편 * 주차장 안내 * (진료료 별도)

화정동 주택은행추신회관
← 송정리 → ← 돌고개 →
경희한의원 중앙병원